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경주 목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창 1:31/왕하 15:3-9)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이 눈에 아무증거 "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 (마태복음 5:1-5)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5 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개역성경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일차적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후사, 즉 천국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기업의 축복은 죽은 후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팔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는 문법을 보면 미래적이지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릴 천국의 복이지만 이 땅에서도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은 후에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 인도하심, 보호하심, 예비하심, 응답하심 그 모든 복들을 통틀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의미, 타협하는 의미, 뒤로 물러서고, 뭔가 유약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쓰여진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설득 당하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원함을 내려놓는 모습과 마음과 태도가 온유입니다. 나의 욕심, 감정, 정욕, 죄를 내려놓는 힘이 온유입니다. 그 온유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11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온유란 둘째,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37:9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 받을것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참된 온유함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신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강한 마음입니다. 기다림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다해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역사하심을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온유한 자로 살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김정림 선교사** - 주일예배 설교 말씀은 따스한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정림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전해주십니다
3. **임시성도총회** - 오늘 예배 후 2022년을 위한 인선, 예산위원회 인준을 위한 성도총회가 예배후에 있습니다.
(고현명, 김영란, 심영민, 유영민, 조정욱)
4. **부장회** -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부장회로 모입니다.
5. **초원모임** - 10월 24일 주일 오후에 초원 모임으로 모입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0/17	10/24	10/31	11/07
대표기도	유경주	고현명	조현숙	유영민
헌화성도	오상균	김인수	정병철	이화선
봉사당번	따스한목장	신바람목장	믿음목장	은혜목장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2,013.28	

행사 및 모임

10 월	성도총회	10 월 17 일(주일)
11 월	추수감사예배	11 월 21 일 (주일)
	교회 대청소	날짜 미정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동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나순규 (Indonesia)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동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울음이 아닌 애통의 기도

인간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어릴적 배가 고프다 때, 무엇인가 필요할 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울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채워 달라고 울음을 통해 요청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울음과 눈물을 보입니다. 넘어져서 손과 무릎이 까졌을 때 울음을 터트렸고, 잘못된 일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종아리에 회초리를 맞았을 때 울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통함과 분노할 때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한탄하며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우는 법, 눈물을 배운 적이 없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을 흘리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일예배에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속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만 그 애통함과 울음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분노와 고통과 아픔으로 흘리는 눈물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애통은 인간적인 울음과 다릅니다. 애통은 기도입니다. 애통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울음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 애통에는 마음에 있는 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까?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으로 인한 애통,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기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호소하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편이 되어 달라고 험담하며 흘리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애통의 기도를 드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지 않고 절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원망의 자리에 주저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불신앙을, 마음의 낙심함과 좌절함, 분노함을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아뢰기를 멈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는 애통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 용서와 용납,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참된 애통의 기도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애통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샬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